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한인회보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34

John K. OH - Publisher
JAE HONG KIM - Editor
(206) 362-4500

August / September ,85

목 차

1. 권두언(광복절에 즈음하여)
2. 엉거주춤의 자세에서 벗어나자
3. 한인회 동정 및 공지사항
4. 특집 성공사례담 제 1화
5. 여름철 음식물 관리는
6. 알러지 질환이란?
7.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8. 교민동정 및 소식
9. 한인회비 납부자명단 및 한국의날 행
사경비결산내역
10. 한인업소명부
11. 교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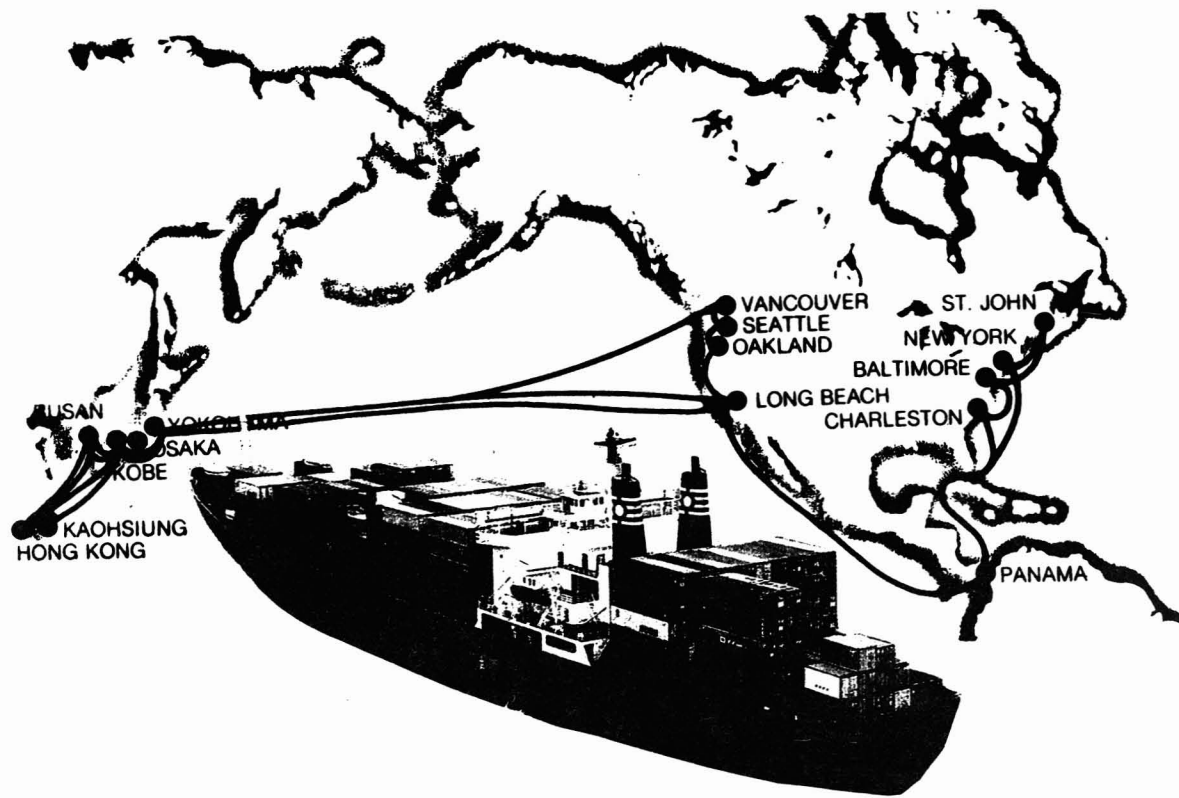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3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1520 Seattle WA 98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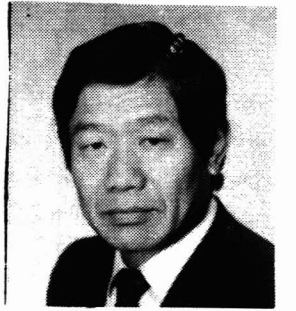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틀비치 지점	(213) 437-0431
뉴욕 지점	(212) 422-5958
샌프란시스코지점	(415) 777-2600
시카고 지점	(312) 893-7500
휴스턴 지점	(713) 227-3281

권두언

광복절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한인 여러분께,

제 4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몇마디 말씀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8월 15일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40주년이며 우리가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된지 40년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37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40대 위의 나이 많은 분들은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못할것입니다.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글, 심지어 이름까지 잃었던 우리가 광복을 되찾아 어른이나 애나 할것없이 목이 쉬도록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던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통상 30년을 한세대라 한다면, 우리는 광복후 두 세대째에 산다고 할것입니다. 이 뜻깊고 희열에 찬 날에 우리는 『광복절』이 갖는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것입니다.

첫째는 광복은 우리힘으로 얻어진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되었다 하나 1910년 일본에게 함방된후 우리 조상은 언제나 독립을 염원하며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이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 되기도한 3.1운동은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결정체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는 독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오랜기간을 두고 싸워온 결과 광복의 햇빛을 본것을 잊지말고,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하겠읍니다.

둘째는 광복을 가져온 열의로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이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읍니다. 국토가 분단된지 40년!! 그리고 가족과 고향산천을 등진 이산가족의 슬픔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금후 통일은 전두환대통령 각하께서 제창하신바 『민주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따라 이룩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최근 남북대화의 움직임이 활발

한것은 통일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북만 통일된다면 이세상 어느국가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미국에 이주해온 여러 한인분들은 밝은 내일을 위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룩하고 자랑스러운 2세를 키우는데 주력합시다. 이주해온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아직 안정되지 못한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건 미국에 이주해온 목적은 『좋은 삶』을 갖고져 온것이므로 가정이 화목하며, 우리의 2세들이 자랑스럽게 자라가도록 사랑으로 다스리고 힘써 나가야 할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반만년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룩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이 우리의 모든 희망이나 소원이 시간을 요하고, 모든사람이 진정과 노력으로 부단히 앞을 향해 전진을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의 생활이 고단하고 궁핍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살아가는것이 광복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믿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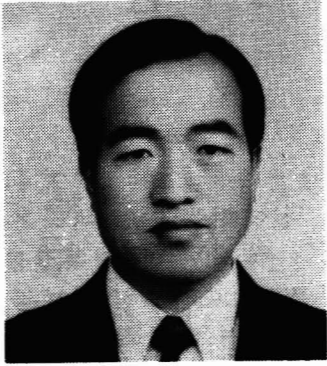
끝으로 매일의 생업에 바쁘신 여러 한인분들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심을 바라오며, 두서없는 저의 글을 맺습니다.

1985년 8월 15일

주 시애틀 총영사 안세훈 배

꽃 보다 더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영거주춤의 자세에서 벗어나자



김상구목사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목사

사람이 들어 누워있는것이 제일 편한 자세일것이다. 혹은 경우에 따라 등을 어디다 기대고 다리를 쭉뻗고 앉아있는 것도 편한 한 자세일수 있다. 사람이 견디기 제일 어려운 자세가 서는것도 아니요, 아주 앉은것도 아닌 영거주춤 서있는 자세다. 혹은 우리가 단체사진을 찍을때 앞사람보다는 높게하고, 뒷사람보다는 낮게하기위해, 오금을 반쯤 굽히고 영거주춤 서있어보면 참말로 이 자세가 얼마나 힘든 자세인지 곧 알게된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태도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데서 많은 고충이 온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사회에 섞여 살고 있다. 그래 어느 가정에서나 미국식과 한국식의 차이에서 오는 애매성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내외의 경우를 보자. 남편은 미국에서 아내의 직장생활을 아주 당연한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내 아내는 역시 한국식으로 또 가정에서 모든것을 다 시중들어주기를 바란다. 아내는 내가 미국에 와서 나도 남편처럼 돈을 벌고 있고 나도 남편과 꼭 같이 직장생활에 시달리고 있으니 내 남편도 미국인 남편들처럼 범사 가정일에 내 남편이 일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의 요구들이 다 만족되지 못하여 가정마다 문제가 생긴다. 결국 아주 미국화되지도 못했고, 아주 한국식도 아니라는 『영거주춤』의 가치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된다. 한국식의 목회는 목사가 교회의 당회장으로 군림하는 형태에서 권위를 갖고, 이 권위속에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이 권위속에서 교인들이 은혜로 성장되는 것이 소위 성공한 목회의 한 패턴이다. 그러나 미국식의 목회는 목사가 하나의 봉사자로, 일군으로 설교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교인들의 존경과 이해와 사랑을

받으며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인이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느목사가 너무 한국식으로 권위를 주장하다가는 이민교회에서 배척을 받기 일쑤요, 너무 봉사를 하다보면 권위가 없어져서 그 목사의 설교에는 은혜가 없게되고 그래서 또 이민교회는 문제를 만난다. 결국 이 경우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거주춤의 목회관, 영거주춤의 목사관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장로에 대한 경우도 꼭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장로라고 하면 믿음의 선배요, 사회의 지도자요, 헌금을 해도 교회에 산의 반 이상을 당회원(장로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장로직은 참으로 귀한 권위의 상징인게 보통이다. 그러나 미국교회의 장로직은 순수한 일꾼이다. 봉사자다. 그래서 미국교회에서의 장로는 돈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도 할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장로들은 한국식의 권위는 가지려 하면서 미국식의 봉사엔 게으르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장로들처럼 헌금하는 일에 크게 앞장을 서거나 믿음의 생활에 크게 앞장을 서기가 힘든데, 교인들은 장로들을 때로는 미국식으로 생각하여 일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다가 때로는 한국식으로 생각하여 왜 장로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느냐고들 말을 한다. 이것도 결국은 영거주춤의 가치관이 가져오는 문제다.

자녀교육의 문제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어쩔수 없이 한국인의 자녀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는 미국적인 것을 요구하다가 또 한국적인것을 요구한다. 미국아이들처럼 취직도 하고 돈도 벌면서 공부하기를 바라면서도 한국식으로 또 공부도 잘

해야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미국아이들처럼 완전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지도 못해서 대부분 대학교에 가서까지 부모의 전적도움을 바라면서도, 또 한국적인것을 요구하는 부모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이것도 완전히 한국적인것도 아니요, 완전히 미국적인것도 아닌 『영거주춤』의 가치관이 가져오는 문제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거주춤하는 불편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힘있게 걷는 자세를 가질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필요에 따라 한국인이 되고 필요에 따라 미국인이 되는 이 자리에서 나올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에는 먼저 두 가지의 대전제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는 내가, 내 자녀가, 내 교우가 모두 한국인이다 하는 제일의식의 고정

이요, 둘째는 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미국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고정의식의 재확인이다. 내가 한국인으로 미국땅에 살고 있는 이것은 내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한 바꿀수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를 미국인으로 착각하고, 또 때로는 미국땅을 한국으로 착각하여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의식이 확실하면 한국의 아름다운 가정의 덕을, 삼강오륜을 지켜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자의식이 확실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아끼고 도와주어야하며 사회에서 내 스스로 내 권리와 자유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

나는 한국인으로 미국땅에 산다는 평범한 사실앞에 항상 솔직한 대결만이 영거주춤의 자세에서 일어나 걸어나가는 자유를 누릴수 있을것이다.

내과의사 개업안내

친애하는 교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동부 보스톤(Boston) 그리고 펜실배니아(Pennsylvania)에서 16년간 내과의로 봉사하다가 이곳 시애틀에 이사온 김선중 이 삼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26년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포 제현 가정에 가정의사로서 믿고 찾아주실수 있는 의사의 사명을 다하여 성심 성의껏 인술을 봉사코져 아래와 같이 개업안내를 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삼가 드림

경력 : 서울 국립 경찰병원

서울 철도 병원

외과전문의 10년

미국 TUFFS University, Nfew England Medical Center, Boston 암(Cancer)전문의 4년

미국 펜실배니아 일반내과(Family Doctor)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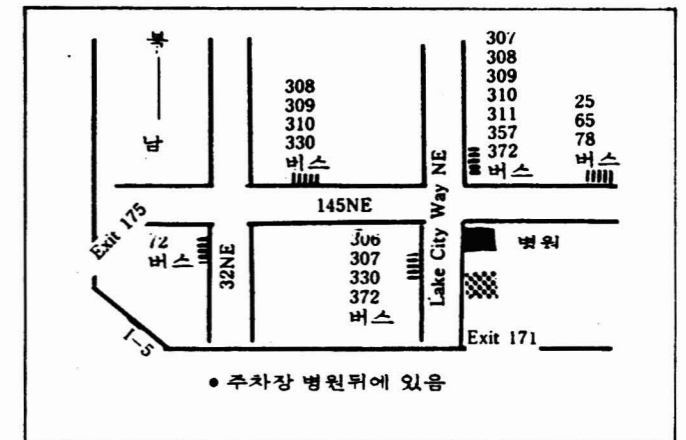
주 소 : Sun Choong Kim

14322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사무실 : 365-7327

집 : 742-9162



● 주차장 병원뒤에 있음



“한국의 밤” 에서 주지사 와 환담하고 있는 한인회 임원들



11. 한인회 사무실 이전

지난 6월 15일 그동안 사용해오던 사무실을 또다시 옮겨야할 형편으로 Greenwood 125 가에 있는 (옛)Broadview Elementary School내에로 옮기느라 또 한번의 고충이 있었다. 다행히 교통이 편리하고 용도가 다양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교민들의 방문을 바란다.

새주소 : 12515 Greenwood Ave N Seattle, WA98133

전 화 : 362-4500(중전과 같음)

우편발송주소 : P.O.Box 24992 Seattle, WA 98134

12. 재미동포 장학생 선발

본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재미동포 장학생 선발이 지난 8월 6일 확정 발표되었다. 서북미지역 총영사관 관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는바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김영미	U.W	여	Seattle	생물학전공	
백상현	U.W	남	Tacoma	의학	
이국철	U.W	남	Seattle	경영학전공	

13. Sea-Fair Drill Team 2등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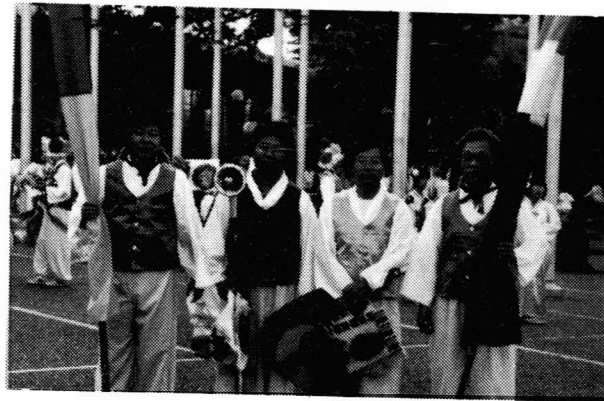
지난 8월 2일 있었던 씨-페어 행사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당당히 참여해 Drill Team 부문에서 2등을 했다. 지난 8월 7일 오준걸회장은 관계기관에서 있었던 각팀들의 수상식에서 2등상으로 상패를 수여 받았으며 행사에 참여해준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했다.



Sea - Fair 퍼레이드에서 한국팀이 2등을 차지하고 상패를 들고있는 이사장 및 회장



퍼레이드에 선두에 나서기 앞서



퍼레이드 행사의 임원들



한국 팀 의 모습

14. Sea-Fair 행사 참여

지난 8월 2일 시애틀의 연례행사인 Sea-Fair 퍼레이드에 한인 커뮤니티가 당당히 참여해 시애틀내의 한인 커뮤니티의 건재를 보여주었다.

이날행사는 예년과 달리 미해군의 다수 참여가 이채로왔고 예년보다 많은 팀이 참여해 더욱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아진 우리 행사대원들은 짧은 시간의 연습을 통해 단결된 한인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고유의상을 입은 농악대는 관중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을 수 있었으며 행사중연변의 한 교포할머니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 행사대원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고마운것은 행사 연습과정부터 퍼레이드 끝까지 진두지휘해 추신 한만섭 이사장께서 수고를 하신데 감사하며 한인회 전임원, 이사전원이 이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다. 차량을 지원해주신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리며 특히 고마운것은 해마다 자진하여 우리 농악대를 교육 지도해주시는 백인희 여사님께 전 교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

K. P. 번역원

- *사건조사, 법률처리 일선
- *유능한 변호사 일선
- *법정·이민국·정부기관·병원 통역
- *계약서·보고서·각종 신청서류·책자 고급번역 및 작성
- *ESCROW 서비스
- *이민문제 상담.

Suite 303 Lyon Building Seattle, Washington 98104
607 Third Avenue (206) 682-3480

15. 청소년 캠프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2박3일)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인회 주관으로 실시됐다.

작년과는 달리 청명한 날씨가 계속돼 수영장과 운동장에서 움추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뛰는데 보람있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심어주었던 캠프였다고 담당자는 말한다.

특히 총영사님을 비롯 한인회장, 임원의 협조에 감사한다. 더욱 감사한것은 이 대회를 주관해서 지도해주신 U.W 학생단에 감사하며 초청강사로 초빙된 유대식박사님, 박성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청년부장 윤희남씨에게 노고를 감사한다.

16. 8.15 독립기념관 설립기금 모금

본국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8.15 독립기념관 건축기금 모금에 교포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금번 8.15를 기하여 본국정부에서는 8.15 독립기념관을 건축코져 범국민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재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함.

문의처 : 한인회(125th St Greenwood Ave N Seattle 소재)

전 화 : 362-4500

한인회비 납부자명단 및 한국의날 행사 경비결산내역

1.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7월31일 현재)

김재호	\$100	이신남	20	윤학덕	30	김상묵	20
김대진	20	윤용수	20	김성길	20	유태운	20
전기수	20	주기립	100	전계상	50	심상헌	20
김창환	20	배운덕	20	김동진	20	백용기	20
김점태	20	김문중	20	박태호	50	이삼랑	20
김기욱	50	배명현	20	이선복	20	손대관	100
박춘환	20	김수정	20	김중곤	20	지장환	30

2. 한국의날 행사 경비내역

● 지출지부

Red-Lion 장소비	\$8,593.02	5인조 밴드대	1,250.00
무용단 간식대	100.00		10,236.96
준비물	81.94	● 수입지부	
캔들(초)	51.84	찬조금	\$10,210
스포츠라이트	43.16	티켓수입금	\$3,860
꽃	17.00		
어린이합창단 간식대	100.00	계	\$14,070.00

3. 청년캠프 케이시 경비내역

총수입 \$1,650.00	총지출 \$4,090.26
(회비)	
계 \$1,650.00	4,090.26
	2,440.26

우리를 대변하는
한인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특집

성공사례담 제 1화

김창성(김여행사 대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감히 성공사례담을 쓰기에는 부끄럽고 두려울 뿐이다. 편집자의 간곡한 요청에 혹시 천분지 일이라도 우리 교민에 도움이 될까 참고적으로 저의 지난 생활과 지금의 마음가짐을 써볼까 한다.

우선 오늘이 있게 해주셨고 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성공사례담이란 엄청난 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누구나가 이민을 오고 이국땅에 와서 살려면 당하는 어려운 고통과 피로움이지만 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에서 모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가진 직장이 국제관광공사, 여기에서 나의 제 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나 할까. 좀더 넓고 좀더 크게 살아보겠다는 젊은 신념이 총지배인의 추천을 얻어 그저 가면 된다. 그저가면 된다 그저 가면 모든것이 아름답겠지 하는 생각으로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당시(1967년)만해도 우리교민은 많지를 않아 그저 지나가다 동양인 비슷한 사람만 봐도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반가와 했었다. 그렇게도 그리던 그렇게도 바라던 미국땅, 막상 도착해보니 내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 산도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만나는 미국인들마다(처음보는 사람인데도) 『하이 하이』를 연발하고 모든것이 아름답기는 했으나 지금부터의 의지할곳 하나없는 내 마음에는 검은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생비자로 이곳에 왔으니 어쩔수 없이 공부하는 해야 했다. 몇몇 사람의 도움을 얻어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하숙방을 정했다. 누구나 그랬듯이 정말 고학이란 괴롭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도서관에서 또 내일 공부할것을 준비해야 했고 공부가 끝나면 파-트타임 잡으로 또 일을 해야했고 정말 시간이 귀한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간이 빨리가는지... 지

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고통의 시간속에서 졸업을 하고 관계업체인 웨스턴 호텔에 취직을 할수 있었다.

나는 여기서 또 한번 시련을 겪었다. 시간이 도래되어 돌아가야할 시점이 온것이다. 나는 여기서 굳게 마음을 먹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무시간외에도 직장 에 몸을 다바쳐 성실과 근면으로 일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 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얻을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무슨 징검다리 돌 하나를 지난 느낌까지도 가졌다. 여기서 또한 새로운 각오를 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몇번씩 거울앞에서 이를 악물며 다짐을 했다. 그러던중 어느날 나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왔다. 비가 오는 어느날 어떤 여행사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여행사업에 적격자니 무조건 시작을 하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고맙기도 했지만 나에게 가진돈이라고는 천불 그리고 중고차 하나가 전부였다. 또 전혀 생소한 여행업계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 몇일밤을 자지 못하고 번민을 했다. 『나는 돈도 없고 여행사업에는 상식이 없어 할수가 없어』 『아냐, 어찌면 나도 할수 있을지도 몰라』 계속 반복되는 생각에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

그 이튿날 잘 아는 친구 한분을 만나 이야기를 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하는 말에 용기를 얻어 결심을 했다. 『맞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막상 시작하려니 3천불로서는 오피스 하나 얻기도 충분치 못했다. 돈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길로 경마장에 가서 마권에 투자를 했다. 처음에는 되는듯 하더니 이틀째 되던날 나는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 나 자신을 원망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해봤으나 그것 역시 부모님께 도저히 면목이 설수 없었다.

이튿날 중고차 폭스바겐을 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500불을 융자해 주겠다고해 그길

로 조그만 사무실 한구푹이를 얻을수 있었다. 사업은 누구나 하는것도 아니구나, 왜 이리 전화 한통 걸려오지 않는가? 그저 옆에서 볼때는 여행사만 오픈하면 그저 돈이 굴러오는줄 알았는데...그래서 또 몇번이고 때려치우자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철학을 배웠다. 『역시 진정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얻을수가 있었다. 점심을 굶고 차대신버스를 타고 부지런히 연고자를 찾아다니며 내 사업을 선전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철학을 얻었다고 할까, 『시작이 반이다』 그러는중 계속 전화가 여기저기서 나를 찾았으며 내 사업을 바쁘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주마등같이 지난일이 스치며 지나가지만 그당시 정말 누구보다도 피로운 시간이 많았다. 그러기를 13년 이제 오늘의 김여행사가 되어 나름대로 여러차례 관계업체에서 수상도 했고 세미나에서 강의도 하게 됐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많지만 지난 고생스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나름대로 느낀것을 이야기 드리 고져 한다.

첫째, 나는 한국아닌 이국 이곳 미국땅에서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많다고 생각된다. 육신이 약하면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약하면 육신이 병이 들게 마련이다. 우선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생전 해보지도 않던 공장 노동을 해야하고 또 거기서 생긴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가정, 가정뿐이다. 서로가 존경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서로 위로하고 이것만이 미국생활을 이길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잘 살아보겠다고 멀리 이곳까지 와서 서로(부부간)의 작은 견해차이로 가정이 불우하다면 그이후 아무것도 할수가 없고 틀림없이 불행만이 기다리게 된다.

둘째, 나는 작은 사업이지만 내 사업을 돕고 있는 직원을 내 가족이상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들(직원)에 가정문제가 생기면 금전문제가 생기면 나는 참견을 하고 내가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만일 그들에게 가정문제, 금전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그들이 나의 사업을 전심전력으로 도울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을 나의 친가족처럼 대할때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의 사업체처럼 연필하나 종이한장도 아끼며 나를 도와준다. 크건 작건 사업체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었을때 무엇이든지 도 전할수 있다고 나는 장담한다.

세째, 나는 엇그제 아닌 지난 1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평가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좀더 내일보다 모래는 좀더 하고 항상 욕심을 가지고 계획에 도전을 해왔다. 『비가 오니까 장사가 안되었고』 『날이 더워서 장사가 안되었고』 『날이 너무 추워서 안되었고』 이렇게 낙관만 한다면 사업은 절대로 성장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계획(욕심있는)을 세워 실천하고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운다면 무엇이든지 발전할수 있다고 장담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지면을 채운다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 지면을 할애 해주신 한인회에 감사사를 드린다.

백 소아과

Kiwan Paik, M.D.

(206) 365-4533

진료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5:00
토요일 10:00-1:00
※ 정문에서 왼쪽 첫번째 단층건물

PAIK'S PEDIATRIC CLINIC
NORTHWEST PROFESSIONAL CENTER
1570 N. 115th St #16 Seattle, WA 98133

여름철 음식물 관리는

이홍원(식품공학박사)
(현 버벌스 화인 연구개발실장)

식품위생-이것은 꼭 여름철에만 주의를 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일년내내 식품위생에 유의하여야만 건강을 지킬수 있고 비극 내지는 말썽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최근에 멀리 가까이에서 식품중독에 관한 큰 뉴스를 들었는데 그 하나가 해산물을 먹고 탈을 일으켜 한국에서 해산물(날것)을 기피하는 일이 생기고, 가까이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 계통 상표의 치즈가 사람에게 해를 일으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식품중독으로는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포도주에 자동차 부동액에 쓰는 화학약품을 넣어 단맛을 더 내게 하려고 한것이 말썽이 되어 제품수거 소동이 나기도 하고 살충제가 검출되어 수거소동이 난 수박도 매스컴에 여러날 오르내린 일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식품에 관련된 사태를 배경으로 이 시점에서 여름식품의 위생에 관한 이 글이 교포여러분의 여름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생존)이란 나면서 부터 균과의 투쟁이었다.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거나 고통을 앓는것이 그것이었다. 요즘은 여러분야의 학문이 발달하여 그 형편이 좀 나아졌을뿐이다. 가공법, 보존방법 등이 발달하고 냉장고등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이용할수 있어도, 부주의를 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매일 이곳 신문에 보면 시한부로 식품업소가 문을 닫는 처분을 받은 기사를 보게되는데 이것은 대개는 식품을 법에 규정하는 온도보다 높은곳에 두거나 업소의 불결한 상태, 또는 해충(쥐,곤충)으로 인한 업소의 청결상태에 대해서 가해지는 행정적 조치를 받은것이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식품중독과 식품중독을 겪지 않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세균에 의한 식품중독은 세균이 감염된

식품을 먹거나 세균이 독소를 생성한 식품을 먹게되면 일어난다. 식품감염이나 중독이라고 할수 있겠다.

세가지의 세균이 주로 세균성 식품중독을 일으킨다. Clostridium botulinum, Salmonella 그리고 Staphylococcus이다(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 살모넬라, 그리고 포도상구균). 그러면 이 세가지 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 보툴라이넘 : 원래는 독일에서 변질된 소세지를 먹은데서 생긴 병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이 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신경계통을 해치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우유제품에서 이 균이 발견된다. 대개는 이런 식품에 이 균이 서식하며 개스가 생기거나 산패한 냄새가 난다. 이 균은 열에는 상당한 저항을 가지고 있으나 산도가 4.5이상이면 잘 자라지 못한다. 여름철에 잘 먹는 냉면에 우리가 식초, 겨자로 맛을 내는데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인 바탕 없이도 식품을 잘 조리하는 슬기를 가졌던 것 같다.

2)살모넬라 : 고기, 우유, 생선, 계란등과 소세지, 고기파이, 그리고 일차 가공 고기 제품등은 가볍게 조리를 하고 많이 손이 가기때문에 이 균이 잘 생기기 쉽다. 이 균은 심한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이 균에 의한 식품중독도 이 세균이 오염된 식품을 먹는데서 생기므로 사실은 식품에 의한 감염이다. 따라서 제대로 조리를 해서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종류의 식품감염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균은 열에 의해서 비교적 잘 파괴가 되기 때문이다.

3) 포도상구균 : 이 균은 살모넬라와 비슷한 열처리에 의해서 파괴된다. 이 균은 공기, 물, 우유, 하수도에서 발견되며 동물체에서도 피부, 종기, 내장, 호흡기에서 발견된다. 한마디로 개인 위생관념이 이 균에 의한 식중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식기나 도구 그리고 손을 잘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함을 말한

다. 이 균에 의한 식중독은 위장장애를 초래한다.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이 교포가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을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편리한 오븐이기는 하나 주의해야 할점이 있다고 본다. 최근 퍼듀대학교 연구발표를 보면 살모넬라와 포도상구균이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에 의해서 완전히 멸균이 되지 않는것으로 나타나있다. 가정에서 이 오븐을 사용할때에는 고기나 등등이 완전히 쿡킹이 된것을 확인하고 먹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세균들을 왜 특별히 여름에만 주의해야 하나 하는것은 세균의 증식율이 온도에 따라서 특히 더울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수가 많을수록 없애기도 힘들고 부주의에 따라서 식품중독, 감염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식품중독, 감염으로 고생을 앓게 되겠는가?

- 1) 부풀은 통조림은 먹지 말것.
- 2)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음식은 먹지 말것.
- 3) 조리를 해가지고 놔두었다가 다시 잘 조리한 식품은 피할것.
- 4) 얼렸던 식품이라도 실온에 장시간 둔 음식은 피하고
- 5) 고기는 품온을 빨리 낮추고 냉장고에 보관할것 등이다.

교포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美國 50個州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습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로고 빠른
한국일보

282-0022

LIM SHIL 임실정 RESTAURANT

안녕 하십니까?

한일각과 영미정에서 일하던 임아주머니입니다.

이곳 Lake City에 순한국식 음식점 "임실정"을

막 개업하였습니다. 장소는 작고 협소하지만 음식맛은 씨애틀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일차 오셔서 맛을 비교하세요.

감사합니다.

13320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206) 364-0784

알러지 질환이란?

백기완(소아과 전문의)

저는 요즘 환자들로부터 『한국에서는 별로 들어본적이 없는 알러지가 미국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하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눈과 코가 가렵고 재채기가 나며 코가 심하게 막혀서 잠을 설치거나 심하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일에 의욕을 잃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알러지를 치료가 힘들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생각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알러지』란 어떤 질환이며, 그 원인과 종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진단과 치료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러지는 알러지성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항원, Allergen)에 대한 항체(Antibody)의 과민한 반응상태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알러지성 체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요인과 주위환경에서 오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선천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한살이전에 알러지성 음식물(계란, Peanut Butter, Whole Milk, Chocolate, Oranges, etc.)이나 이물질(Baby oil, Lotion, etc.)에 일찍 노출됐을 경우에 그 아기는 알러지성 물질에 대한 과민한 체질로 변하게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성인이 된후에 이물질(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항원)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항체의 증가로 인해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1세대들은 과거보다 이물질이 더 많은 환경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알러지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물질(항원)의 종류를 들어보면 1) 나무, 꽃, 잔디 및 잡풀에서 계절에 따라 생성되는 꽃가루와 꽃씨등(Pollens)

- 2) Carpet이나 Sofa등의 먼지(House Dust)
- 3) 담배, 매연, 화학물질등 공해(Air Pollution)
- 4)화장품, 비누, Lotion, Spray(Perfume, Chemicals)
- 5) 새털, 짐승털, 곤충, 곰팡이(Animal Danders, Insects, Molds)
- 6) 약물의 남용(항생제 및 의약품)
- 7) Foods, Fruits(Citrus Fruits)등을 들수 있습니다.

알러지의 종류는 증상을 나타내는 장기(Organ)나 부위(Location)에 따라 구분되며 그 종류를 열거해보면

- 1) 호흡기 알러지(Respiratory Allergy)
 - ◎알러지성 비염(Allergic Rhinitis)
 - ◎기관지 천식, 혹은 알러지성 기관지염(Bronchial Asthma)
 - 2) 알러지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
 - 3) 알러지성 결막염(Allergic Conjunctivitis)
 - 4) 두드러기(Urticaria, Hives)
 - 5) 곤충 알러지(Insect Allergy)
 - 6) 약물 역반응(Adverse Reaction to Drugs)
 - 7) 음식물 역반응(Adverse Reaction to Foods)
-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호흡기 알러지는 호흡기의 점막에 이물질이 접촉됨으로써 증상이 나타나며, 감기와 비슷한 재채기, 콧물, 눈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호흡기 알러지중에서 가장 흔한 알러지성 비염(Allergic Rhinitis)은 알러지 반응기 코와 비강내 및 후두점막에 일어나므로 코와 목구멍이 가렵거나 재채기를 하며, 특히 코와 점막이 부어서 코가 막히며, 호흡에 불편을 주는 점이 특징이고,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알러지성 비염은 알러지성 결막염(눈 알러지)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눈이 붓고 가려우며 눈물이 나고 눈에 충혈을 동반하게 됩니다.

알러지성 비염 및 결막염은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와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계절적인 경

우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에 증상이 시작되어서 꽃이 지면 없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수년동안 계속되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일에 대한 의욕이나 능률이 저하되거나 감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관지 천식(알러지성 기관지염 Bronchial Asthma)은 알러지 반응이 폐의 점막 및 기관지에서 일어나는 중한 질환으로서 기관지의 수축 및 점막의 분비물 증가로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및 산소결핍증을 유발함으로써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며, 세균에 대한 저항력 감퇴로 폐염등의 합병증을 자주 동반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의 호흡기 질

환중의 5-10%가 기관지 천식과 관련된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2세전 후에 시작되어서 14-15세 이전에 대부분 증상이 없어지는 질환이며, 성장과정에서 불충분한 치료로 인한 발육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알러지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주로 팔과 다리 및 뺨과 귀밑에 염증을 일으키며 좌우편에 같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기관지 천식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급성장으로 이러한 알러지 질환의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검사가 극도로 발달했고 증상을 치료하는 약품과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알러지 주사(Innuno-therapy)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일식품

개업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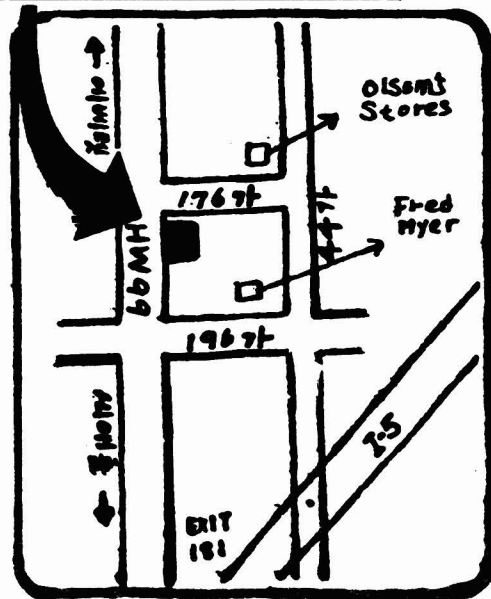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노우스 씨애틀 지역 (린우드) 에 한일식품 (현대식품분점) 을 신설 개업하여 여러분들을 성심 성의껏 모시고져 하오니, 교민여러분의 지도와 사랑을 부탁 드리며 개업인사를 드립니다.

한일식품 김 용 세
현대식품 박 봉 수 배상

- 5월 10일 부터 개업기념 세일시작
- 개업기념품이 있습니다.

- | | |
|----------------|---------------|
| 취 급 품 목 | 영업시간 : |
| ※ 한국식품일체 | ■ 월요일~금요일 |
| ※ 신선한 생선 및 고기류 | 오전 9시~밤 10시까지 |
| ※ 싱싱한 야채류 | ■ 토요일 |
| ※ 짭잘한 밀반찬 | 오전 9시~밤 12시까지 |
| ※ 아름다운 각종 선물류 | ■ 일요일은 휴업함 |

17711 Highway 99 Lynnwood
742 2011 (가게)
745 3283 (집)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2박3일) 한인회 청년 캠프를 계획대로 진행할수 있었던 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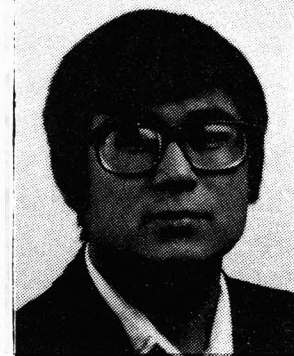
나름대로 짧았던것 같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들과 일거일동을 하며 지도해 주셨던 U.W 학생단, 안총영사님, 그리고 이중언 어로 강의해 주셨던 유대식박사님, 박성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린다.

예년과 달리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활짝핀 하늘아래 우리들의 젊고 싱그러운 가슴을 헤치고 마음껏 뿔수 있었다. 해마다 느끼는 일이었지만 이곳에 젊은 청소년들과 울적마다 내년에는 최소한 두번은 와야 겠구나 생각했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 일년에 한번이 고작이었다.

누구나 느낌은 다르겠지만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서로서로 십년지기 이상의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운동장에서 수영장으로 들판으로 달리곤 했다. 2박3일의 일정이 아쉽기만 하고 시간가는게 아쉬워 서로서로 주소를 적고 전화를 걸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은 정녕 우리를 한가족 한식구로 묶어주는데 충분했다.

잠깐, 우리 주위의 크고 작은일들이 생각난다. 얼마전인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등 아버지가 아들을 구타했다는등... 나는 이런 기사를 읽을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분명히 저들에게도 무엇인가 그러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말이다. 한국아닌 미국땅에서 자리잡히지 않은 초년 이민가정의 환경이 그렇고 살아 버티겠다고 부부가 어린아이를 돌볼겨를도 없이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든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온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을 생각해 보자.

물론 환경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은 할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린 청소년들은 부모의 따뜻한정, 부모의 정신적인 보호없이 살아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 환경속에서 한국인가 미국인가 하는 혼잡



윤홍남(청년부)

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육신적인 고통때문에 그들은 또 부모에게 어떠한것도 사랑을 가지고 요구할수도 없었다.

물론 우리 이민의 역사는 아직 짧으니깐 또 다수의 가정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어찌 이런 환경속에서 부모의 정신적인 사랑없이 자란, 부모보다 물질적인 보호속에서만 자란 그런 젊은이들에게 어찌 완벽한 인간상을 기대하고 어찌 완전한 인격형성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나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으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느꼈다.

첫째로 어린 유년시절에서 청년시절로 바뀌는 시기가 되면서부터 왜 나는 동양인이 되어 미국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낄까. 한때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같이 서양인의 흉내도 내보았지만 역시 동양인이라는 결론에 실망을 가지기도 한다.

둘째로 왜 우리들의 부모는 그저 용돈 몇푼 주는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한양 이것을 해라, 저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가? 부모님은 도대체 나를 자기들의 장난감이나 조각으로 만들려고 한다.

셋째로 나의 학교생활을 제외하고는 나의 모든 사생활을 구속하려 한다. 거기 가서 안된다, 그런 아이들과는 만나서 안된다. 저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해라 등.

넷째로 왜 부모님들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배울 생각을 않고 우리에게 한국말을 모른다고만 나무라는가?

이상 몇가지가 그들과의 생활에서 그들에게서 얻은 이야기들이다.그렇다. 부모가 다 옳고 학생들이 다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최소한 그들이 자기를 비추어볼 거울

도 마련해주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주는 부모님들의 성의도 절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민초기 부부가 정신 없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들과의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들의 감수성 예민한 애로도 파악할수가 없게 된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들은 물질적인 해결이 됐다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자고 생각하면 너무 늦은것이다. 한마디로 이때쯤 되면 미국아이도 아니고 한국아이도 아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저 한다. 최대한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 활용하자.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라. 예를 들어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나, 형제란 어떤 관계인가, 자매란 어떤 관계인가, 실제 부모님들의 가족관계 그들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이야기 해주자. 가족의 단위에 대해 동양적인 관계와 미국적인 관계를 설명,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라.

특히 조심스런것은 청소년 시절의 친구 관계이다, 한국인 친구나 미국인 친구나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도록 하나 항상 주의를 가지고 관찰, 그때 그때마다 설명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라. 자연스럽게 가족이 다른 가정을 방문, 일요일에 한국인 교회등을 부담없이 그들로 하여금 나서게 유도하라.

혹 청년들은 한국인(동양인)임을, 한국인 부모를 가진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청년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틴 에이저에서의 문제이다. 이들이 틴 에이저를 벗어날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동양인(한국인)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허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필요도 절대 요구된다.

이상은 이번 청년들과 캠프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에서 느낄수 있었으며 평소 생각하던 나의 소견을 허락된 지면이 있어 몇자 적어보았다. 항상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시길 빌면서...

교민동정 및 소식



1. 교민 전응상씨의 세 딸 명선, 명진, 명지양이 Downtown에 있는 『Nippon Kan Theatre』에서 오는 8월 18일(토) Chamber 리사이틀을 갖는다. 명선, 명진양은 New York Julliard School에서 재학중이며 지난 6월 카네기홀에서 화려한 데뷔를 했고 명지양은 U.W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유능한 젊은 음악인이다. 이날 공연에 많은 교포들의 성원을 바란다 함(입장료 무료).

4. 교민 김복만씨는 지난 7월 1일자로 Music House를 오픈, 어린아이의 각종 기악지도 성인 기타지도 및 각종 음악(기악)기구 중고품 팔기도 사기도 하며, 피아노를 정밀 조율하기도 한다고 함.
주소 : 15729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 363-5758 김복만

2. 북부시애틀축구회 명칭 개정 및 회원모집
시애틀소재 북부시애틀 한인축구회에서는 7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명칭을 개정하고 축구동인들의 회원을 모집코져 합니다.

아 래
명 칭 : 시애틀 한인축구회
회원모집 :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축구 동호인으로 연령제한 없음.
헤드랄웨이 838-2760
시 애틀 363-6110
774-4103
린 우 드 776-3441
벨 뷰 746-7723
에 베 렛 252-6744
(심상국 회장)

5. 교민업소인(오로라소재) 오로라 식품은 전번 165가 점포가 화재로 전소, 아래주소로 이전 재개업하고 계속 교민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겠다고 함.
신주소 : 13254 C호 오로라 Ave N
(125가 Aurora Ave K-Mart상가내)
전 화 : 362-5575 이재명

6. 시애틀 평화교회 창립
금번 시애틀 평화교회는 이상천(한국 대전에서 시무경력) 목사님을 청빙코 아래 장소에 창립했다.
주소 : 10510 Stone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 522-1456

7. 교민 김창화씨는 Lake City Way 137가에 Auto Body숍을 오픈하고 여러교민의 왕림을 바란다고, 또 교민께는 특별봉사 하겠다고 함.
주소 : 137th St NE Lake City Way
『Elmer's Auto Body』
전화 : 362-6797

3. 교민 임주홍씨는 다운타운에 프린팅숍을 지난 4월 1일 오픈하고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며 특히 교민에게 봉사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함.

주소 : 201 Elliott Ave W suit 130
Seattle, WA 98109
전화 : 282-6066
(Paul & Kathena Lim)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애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8. 한인교회연합회 8.15 기념행사
 한인교회연합회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8.15 기념 교회대항 친선체육대회를 갖는다고 한다.

-체육대회-

- 경기종목 : 1. 배구
 2. 육상(100미터 속주, 400미터 계주)
 3. 줄다리기(15인조)
 4. 노인경기
 5. 어린이 경기

일시 : 1985년 8월31일(토) 오전 9시
 장소 : Evergreen Playground
 56 Ave & 224th St., Mt.Lake Terr

문의사항 774-1885, 776-5749

9. 주점 『태평양』 개업
 본격적인 한국식 주점 『태평양』이 오로라에 오픈, 한국 교민들의 많은 왕림을 바란다고 함.

주소 : Aurora 300 NW 85th St
 전화 :

10. 축구인 모집
 아래내용과 같이 축구회원을 모집하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 싸우스 웨스트지역에 사는 교민으로
 - 연령에 제한없이 축구를 좋아하는분으로서
 - 자신의 체력단련 및 교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코저 함.
- 연락처 : 김춘동 762-1793
 임호경 932-2692

11. 타코마 한인회장기 쟁탈 도시대항 축구대회

타코마 한인회장기 쟁탈 도시대항 축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인접교포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강화와 축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귀회의 팀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8월17일(토요일) 오전10시
 장소 : Oakwood Elementary School
 3220 Ketell st Tacoma WA
 등록 : 8월10일(전화등록가능)
 전화및 문의사항 등록 : 582-5478
 535-4749

12. 교민 이금철씨는 에드먼드에 카메라 수리 및 사진현상소를 지난달 오픈하고 교민여러분의 협조와 이용을 바란다고 함.

상호 : Lee's Camera & 1 hr Photo
 장소 : 에드먼드 Safeway 샵핑센터 광장옆
 전화 : 771-1911

13. 교민 양태승씨는 Over Night Printing 슝을 지난달 오픈했으며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함.

장소 : Stewart와 Boren 코너
 전화 : 621-9412

14. 교민 오재석씨는 지난달 그로서리 슝을 오픈하고 교민의 애용을 바란다고 함.

주소 : The Corner Grocery
 12339 Roosevelt wy NE
 Seattle, WA 98125

아로라 식품

아로라 165가 점포가 전소 다시 125가 K-mart 상가내에 다시 개업하게 성원해주신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배상

신선한 식품·신선한 가격·신선한 분위기
 신선 신선은 오직 우리만의 자랑입니다.

전화 362-5575

S N Aurora 125th St K-mart 광장

한인업소

공판·언론기관 및 각단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362-4500
시애틀 총영사관	441-1011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575-1320
동아일보 시애틀지사	244-9930
조선일보 시애틀지사	241-5144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838-3155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282-0022
코리아저널	547-3729
한국의환은행	622-7821
대한선주	625-1960
한진해운	447-9422

회계사무소

김종구 회계사무소	367-0655
손기남 공인회계사	340-1622
이규영 계리사	623-4181
정태수 공인회계사	762-1038

약국·병원·한방원

박약국	527-3010
백소아과	365-4533
박창식내과	624-5867
손대관치과	833-3770
이영주치과	775-3456
조병규치과	367-5570
Hoi W. Lee 치과	226-8151
김형기 산부인과	259-7293
로명재 산부인과	833-2580
엄도승 산부인과	872-3400
오덕주 산부인과	848-4453
이창준 산부인과	584-4355
윤안과	778-0333
홍인표 신경전문의	587-5747
무림한의원	747-3677
보혜사 한의원	762-8566
중국 한의원	628-0950
제일 한방원	483-8136

식당안내

경동장	625-0356
남대문 반점	248-2250
성일관	367-8837
신라회관	623-9996
영미정	623-3112
용궁	524-5525
한일각	587-0464
청도식당	367-9339
태화각	485-4020
하와이 BBQ	771-6311
Lander's 식당	624-3231
오리엔탈 BBQ	771-3700

보험

강성국 에퀴터블 보험	838-9218
김덕희 메트로폴리탄	565-0070
김철준 보험	546-6586
김해봉 종합보험	774-8508
류 종합보험	364-2450
박법신 종합보험	455-0650
정문언 종합보험	523-9111
최병택 에퀴터블	838-9218
최영세 에퀴터블	624-8380

여행사 및 선물센터

김여행사	624-2227
대한여행사	941-8866
유라시아여행사	581-0202
장여행사	523-7057
타코마여행사	582-0303
타코마한국여행사	588-0333
한국여행사	623-9290
롯데백화점	941-8353
오로라 선물센터	362-8617
신신백화점	582-2975
한국 선물센터	762-5510

사진·인쇄·간판·표구·골동품

Ko's 사진관 & 비디오	775-0896
하바하바 사진관	475-6226
뉴모드 인쇄소	581-0060
부림인쇄소	433-8811
쇼어라인 그래픽스	364-6630
Prolitho Inc.	622-7371
Top Print	775-7667

Kim's Art & 간판	474-4998
Park's 간판	762-5410
Bell Town Framing	625-0872
호박 고미술	343-5577
PIP Printing	282-6066
Lee's 1 Hr Photo	771-1911
통역 및 변호사	
K.P. 번역원	682-3480
범아대서소	582-2538
방대한 변호사	525-7206
윤영일 변호사	582-7966
브라운 변호사	682-0565
크린톤 변호사	624-6831
식품점	
그랜드식품	525-8334
김치마켓	475-6128
남대문 식품	643-4244
부한식품	588-7300
서울상회	588-9222
중앙식품	762-5620
아줌마식품	941-1123
오대양식품	363-6850
오로라식품	542-6577
장미상회	941-8144
제일식품	774-4103
켄트상회	852-8388
탐스마켓	243-7040

한국식품	682-2992
현대식품	762-4792
Lee's produce	762-5220
부동산	
김병관 부동산	365-4700
김성남 부동산	241-0213
김일영 부동산	874-4452
김준택 부동산	771-4985
김현중 부동산	774-3839
김혜련 부동산	778-2181
노명건 부동산	774-5200
노순열 부동산	622-6385
마가렛 한 부동산	365-5455
변종혜 부동산	223-8949
배기영 부동산	776-4797
수잔 김 부동산	392-8535
Sam 윤 부동산	878-3647
오화실 부동산	455-9571
양구현 부동산	632-6900
이상진 부동산	473-4519
이양남 부동산	363-0443
이종주 부동산	527-0555
이형 부동산	363-8509
이형석 부동산	523-5742
조명철 부동산	623-0966
조인 부동산	364-5966
채태용 부동산	588-4343
황수철 부동산	522-7566

KRIK-DIAMOND CO.

다이아몬드 판매



※ 품질 보증서 첨부

※ 교포들에게 특별봉사

4th·Pike Bldg. #625
623-2452



정문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LEE S TIRE 및 자동차 종합정비 센터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362 - 4449

자동차 판매 및 정비

김영일	
심재환	363-6110
천정민	632-2400
Ace Auto Body	838-1310
Alki Auto Body	935-9008
Choi's Auto	524-2960
First Auto Repair	762-5844
Kim's Auto	524-6006
Lee's Tire & repair	362-4449
Midway union	878-7500
101 Auto Body	525-5778
Skip's Jody Shop	839-5193
Zion Auto Rebuilder	937-3111
Elmer's Auto Body	362-6797

학원 및 태권도장

제일음악학원	367-2273
O.K. 운전학교	775-1588
김 참피온 태권도	535-2615
Lee's 태권도	839-0580
Yi Brother 태권도	859-2682
윤 태권도	633-2273
Music House	363-5758

건축·페인트·정원 및 각종수리

백광호 건축 사무소	467-0900
진흥건설	451-0318
Won Construction	767-9372
송스 건축 & 페인트	525-7680
Park's Painting	762-5410
퀵스랜드스케이핑	821-1960
박정원사	433-0820
김복공소	771-8019
차니전파사	241-5141
쿨러빙동	941-9417
파이프 수리	363-5383
가페트 수리	175-9254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e Tower #707
(206)587-5747·3748

비디오·당구장·꽃집·미장원·의상

Apollo 비디오	546-4222
King 비디오	624-9815
한국 비디오	762-5510
서울 당구장	545-9878
승리 당구장	588-0679
한국 당구장	767-3101
세계파아노사	365-5540
성문서적	763-2058
디모인스 꽃집	824-5920
U-Village 꽃집	525-7422
서울 미장원	241-0776
성 미용	259-4724
캐쥬얼 88	778-1541
한의상실	941-1553
서울 뷰티	241-5403
아모레 화장품	542-7138
플라 화장품	584-2584

*** 잘못된채 되었거나 누락된 업체는
한인회로 연락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한인회보 안내

한인회보는 교포사회의 매스 미디어로서의 사명을 감당코 교민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며 반려하는 여러분들의 회보입니다.

교포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소식을 바르게 신속히 전달됨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매스 프로젝션을 이루도록 교민사회의 교각역활을 담당하고 있오니 많은이용을 바랍니다.

교민각자의 구매활동과 상공회, 교계, 언론기관 각 기관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알려주시면 속히 회보에 기재함으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이지역 교민으로써 아직까지 한인회보를 받지 못하신분은 즉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회보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사하신 분은 새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보 우편종류는 원웨이(One Way) 임으로 새주소를 찾아가지 않으며 주소불명도 본한인회 사무실로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한인회보는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신청 및 안내

당 회보에 광고를 게재코져 하시는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선착순에 의해 게재할수 있습니다.

1. 규격별 광고요금(85년8월1일부 조정시행)

- 표지안면 250불(1회 기재분)
- 뒷면표지 250불
- 뒷면 내지 전면 200불
- 내지 1/2면 120불
- 1/3면 80불
- 1/4면 60불
- 1/8면 30불

2. 광고문의 및 접수처

P.O.Box 24992 Seattle, WA 98134
Tel 362-4500 한인회관

여러분의 한인회는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인회는 바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10명이 100불씩 내서 운영되는것보다 1,000명이 10불씩 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 1. 회비 : 1인 10불(1년)
1세대 20불(1년)

2. 발송주소 : P.O.Box 24992 Seattle, WA 98134
Korean Association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다같이 성원합시다. 감사합니다.

한인회 : 12515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33

고원응부사대부흥성회

아래와 같이 대부흥성회를 가지오니 많이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고원응부사(나성 벨리제일교회 담임)
일시: 1985. 9.5(목) ~ 9.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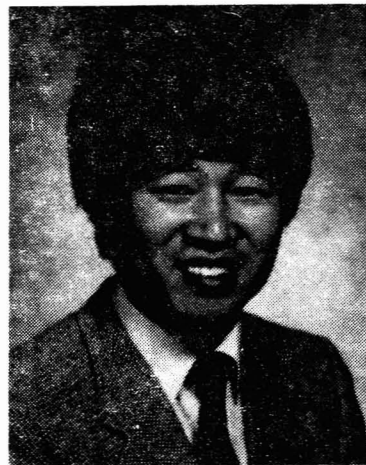
부흥성회시간 : 저녁집회 오후 7시 30분
: 낮집회 오전 10시 //

장소: 위싱턴항일루터교회 (김동진 목사 사무)
740. S. 128TH ST
SEATTLE. WA. 98148 <BURIEN>

주일	오전 10시
월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전 1시
수요일	오전 6시
목요일	오전 6시
금요일	오전 10시

주최: 위싱턴항일루터교회 (씨애틀) (부리엔)

강성국 에퀴터블보험



그간 이렇게 많은 영광을 차지할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저희 에퀴터블 가족 및 교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 IBM - AT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교민여러분의 재산 보호 및 재산증식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보험, 교육보험, 노후대책 (세금공제혜택)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반드시 저에게 먼저 상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평생동안 지키고 키워 드리겠습니다.

- 1984 Million Dollar Round Table Member
- 1985 Winter Sampaigh Agency Champion
- 1084 The President's Cabinet Member
- 1985 Spring Campaign ESF Champion
- 1984 Agency DSF Agent of the Year

The Equitable Financial Services

※ 남녀 AGENT 및 직원모집

대출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저와함께 일하실 성실한분을 에퀴터블에서는 찾고있습니다. 전화 및 편지연락 바랍니다.

* 대우: 월급+커미션+각종보험혜택+Professional Training

475-5353 (Tacoma) ● 838-9218 (Seattle)
Tacoma Mall Office Bldg. #425
P.O. Box 11309 ● Tacoma, WA 98411

교회안내

교회명	전화	담임목사
※ 브리머튼 한인장로교회	377 ~ 2744	이정문
※ 에버렛 베다니한인교회 에버렛한인교회	355 ~ 6377 483 ~ 6074	최창효 고필균
※ 렌튼 렌튼한인교회	271 ~ 5462	김경원
※ 씨애틀 빌립보교회 서부영생교회 성복음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중앙선교교회 씨애틀서부한인교회 씨애틀소망교회 씨애틀중앙장로교회 계철일안식일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장로교회 씨애틀한인장로교회 한인제일감리교회 한인침례교회 평강장로교회 한인형제교회 워싱턴한인루터교회 시애틀천주교회 필그림장로교회 시온장로교회 밴엘장로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평화교회 제일나사렛교회 복음교회	771 ~ 7202 767 ~ 0693 367 ~ 1490 246 ~ 7461 546 ~ 1612 932 ~ 2553 789 ~ 8087 763 ~ 8952 854 ~ 1125 226 ~ 7864 774 ~ 1885 523 ~ 2728 367 ~ 2178 542 ~ 4391 365 ~ 3387 365 ~ 6691 242 ~ 7782 365 ~ 1480 882-1995 362-9181 546-5214 776-5749 522-1456 546-3594	최인근 한상국 윤한두 이현규 박성수 이명택 성윤경 정연빌 유재상 김종원 박영희 김상구 이창수 정하경 최태원 최용걸 김동진 조병기 정용철 최영빈 김영규 송찬우 이상천 백세현 김석순
※ 웨더럴웨이 에덴장로교회 장로교회 한인선교교회	941 ~ 9684 847 ~ 8438 922 ~ 1838	김성권 나병주 송천호

편집후기

1. 평소 존경하던 선배님으로부터 편집담당을 맡아달라는 청탁에 승락하고 맡았다. 교민사회를 위해 촌지라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전임 편집부장에 감사한다.
2. 몇번이나 회보를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알려진 분들의 글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글을 실어보려고 한다. 교양면보다도 생활에 도움되는 글을 실어보려고 한다.
3. 한것도 없이 그냥 바쁘기만한게 편집이란다.
4. 밖에서만 보던 한인회(?), 교민 누구나가 한번씩 한인회장직을 맡았으면 그들의 고충을 알리라. 씨-페어 준비때 한복을 입고 젊은 대원들과 호흡하며 뛰어다니시던 한만섭 이사장님의 노고 누가 알랴?
5. 씨-페어 행사때 관중석에서 누군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단다. 대원들도 울고 구경하던 한인 교포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좋아서인지 슬퍼서인지...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술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휘호

한인회보 1985년 제1호
 발행인 : 오준걸
 편집인 : 김재홍
 SEATTLE-WASHINGTON STATE
 KORFAN ASSOCIATION
 12515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33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 (206) 362-4500

현대식품

*집에서 만든 참쌀고추장 · 조선간장 · 된장
 *소문난 김치 · 밀반찬류

Open 아침9시부터 저녁9시(년중무휴)

762-4792

10402 16th Ave.S.W.
 Seattle, WA 98146

101 자동차 바디숍

완전무결은 101자동차 바디숍의 최대 목표입니다.
 사고 발생시 휘어진 차체를 정확히 바로 잡기 위하여 101 바디숍에서는 최신 장비와 충분한 기술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자동차를 완전하게 고쳐드립니다.



INSURANCE WORK · 바디와 페인트 · UNIBODY WORK · 책임수리

10059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Phone: 525-5778(공장), 789-2655(집)

제일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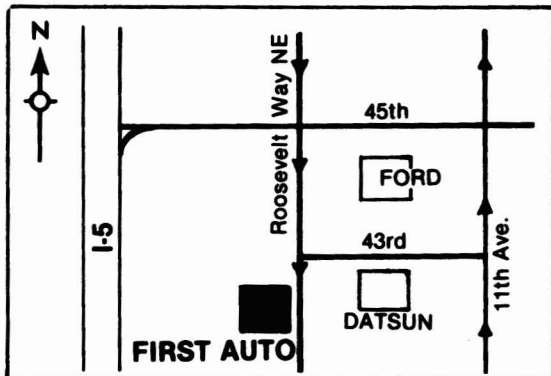
FIRST AUTO SALES & LEASING

안녕하십니까?

198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포 여러분께 인사 드리웁니다.

저는 날로 발전해가는 한인 사회를 위하여 University 지역에 새로이 『제일 자동차』를 개업하여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취급하고 보다 좋은 구매 방법과 가격으로 교포 여러분께 공급하고자 하오니 일차 방문하시어 차량 구입에 대한 일을 상담해 주시면 감사 하겠아오며 분명히 만족한 결과를 드리게 될것을 확신 합니다.

천정민 올림



4301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05
(206) 632-2400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2940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SINCE 1967